패밀리 레스토랑과 교회

(고전11:17~34)

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패밀리레스토랑과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할 때 토요일 새벽기도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둔 가정도 아이들 모두를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아침에 요기 삼아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교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9시가 좀 넘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과 아이를 데

리고 언제나 집에 다 와서 자리 잡고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브런치를 먹곤 했습니다.
달걀프라이, 토스트, 햄, 감자튀김, 팬케이크, 이런 것들을 내주는데, 하여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패밀리레스토랑이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하면서도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렇게 패밀리레스토랑이라고 레스토랑 이름에 패밀리를 갖다 붙인 이유는, 가정 밖에서, 이게 패밀리레스토랑의 정의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가정 밖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에 아주 좋도록 만들어놓은 식당이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 밖입니까, 가정 안입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기존의 혈육상의 식구들이 모인 가정이 패밀리레스토랑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식당이 패밀리레스토랑이니까, 교회가 가정이면 이전의 혈육상의 식구들이 모인 이 가정은 패밀리레스토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확대해서 해석하면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는 안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혈육상의 식구들이 모인 이 가정이 교회라는 가정에 소속된 식구들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가정에서 각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혈육상의 가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나뉘어져서 분산되어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연결해서 믿고 사는 사람들로서 아버지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부관계가 프로그램입니다, 부부가 먼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로 파송돼서 혈육상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부부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야만 돼요.
그래야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하늘의 기운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직장도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이런 면에서 주일날 모이는 것은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의 모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예배에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추석 모임 가자, 설날 모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더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진짜 가정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그룹을 하든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든, 하여간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인들 각자가 이게 진짜 내가 소속감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강화시켜주고 소속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 사건이고,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과 세례와 같은 예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확인시켜주는 예식과 말씀으로 일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를 어떻게 본문에서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교회의 문제 중에 또 하나인 성만찬과 애찬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만찬을 주일저녁마다 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성만찬을 항상 공동식사인 애찬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인 저녁식사를 하고 난 뒤에 성만찬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애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애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사도바울이 어떻게 파악했느냐 하면, 애찬 끝에 하는 성만찬에 임하는 자세, 성만찬을 통해서 갖게 되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이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주는 성만찬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국 애찬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유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해로운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애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교회가 갈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동서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버린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근데 그게 왜 문제였는가 하면 고린도교회가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가정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애찬에 문제가 생겼고, 애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마인드로는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 봅니다.
원래 성찬식의 유래가 주님의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본래 예배의식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날의 식사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도 같은 그러한 명절식사자리에서(식사의 내용은 무교병과 쓴 나물, 어린 양) 식사하신 뒤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만찬의 예식을 제정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녁식사와 성찬식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본래의 최후의 만찬처럼 주일저녁때마다 애찬이라고 이름 하는 공동식사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식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한 식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의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 공동체의 성격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애찬식이 한 가족임을 확인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진짜 유월절이 제정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양을 잡을 때 가족별로 양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해도 사실 많은 양의 고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별로 양을 잡되, 가족의 수가 작은 경우는 이웃의 가족 수가 적은 집과 합해서 한 마리를 잡도록 했어요.
즉, 유월절을 통해서 가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확인하는 그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모임이라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가족,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혈육상의 가정에 소속되어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뒤에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가정이 와해되어버립니다, 고린도교회가.
가족이 와해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저녁에 할 애찬을 위해서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갖고 오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보니, 다 먹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찍 오지 왜 늦게 오느냐?
당시 고린도교회나 초대교회 때 교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수가 노예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저녁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이지 노예나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윗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저녁 먹는 것까지 다 섬기고 봉사한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을 교회로 갖고 오는 그런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와보면 좀 부유한 층이라든지 여유가 있거나 귀족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애찬식을 끝내고 술이 만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대체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교회에 완전히 분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종류의 분파가 아닌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렇게 모일 바에는 너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너희의 죄를 먹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먹는 게 위주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가정이 된 이 공동체,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식구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애찬을 한 것인데, 이게 먹기 위해서 모이는 순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먹는 게 문제라면 우리의 혈육상의 가정이 패밀리레스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혈육상의 가정은 교회라는 가정 밖에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이니까 먹는 게 문제라면 거기서 먹으라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해롭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나 하면 성만찬의 의미를 몰랐

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것의 참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지 의미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에 참여한다, 살이 찢기셨어요, 왜 살이 찢기셨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마음에 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 애인이 내 마음에 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찢어지는 아픔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헤어져서 연결돼있지 않은 채 살고 있으면서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이 찢기신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다 찢어내시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사업체, 이 모든 사랑해서 마음에 살이 된 것들을 찢어내시느라고, 나는 고통 없이 떨어져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떡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죽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참여할 때 참 참여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는 게 사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나인 성 과부가 사는 이유가 외아들 때문에, 사업가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사는 이유가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유가 생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살고 자녀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살고, 권력을 쟁취하

기 위해 살고, 여러 가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위해 삽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가도록 하는 힘.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죄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 없이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존의 생명,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했던 모든 생명들이 다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나님 이외에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것들.
살아 움직이게 한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들인데, 그 가짜 생명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쏟아내신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전파합니까?
참여하면서…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지를 못하면서 성경적인 지식만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이런 교인 많이 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동료로서 목사님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생활 속에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내 목회현장에 적용해서 목회에 대해 죽으세요!
목회가 하나님 자신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에 살아있으니까 교인들은 사업에 살아있고 자녀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세상에 대해 죽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모이는 게 교회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십자가를 붙잡고 해나가던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공동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흩어지면 십자가에서 개인적으로 죽는 것이고, 모이면 공동체적으로 죽으면서 '아, 김 집사님

도 나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를 획득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자, 세상의 가치가 없어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믿음이 강화되고, '그래, 나 혼자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야, 보이지는 않지만 김 집사님 목사님 박 장로님도 당신의 생활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획득하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하면서 살고 있어, 나뿐만이 아니야!' 이런 유대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합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남편인 게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고 아내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남편인 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프로그램의 성공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가정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녀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에 오셔서 자녀들을 touch 해주실 것인가?
직장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모여서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죽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상 성만찬 예식을 매주 할 수는 없어도, 성만찬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의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 모든 세상 문제를 안고 와서 그 세상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이 교회에요, 단체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참여해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영적인 한 혈통으로 가족으로 확인돼서, 이제 혈육상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패밀리레스토랑쯤으로 아는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아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교회로 모이면 모일수록 해로운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그 자체의 의미가 오직 십자가 하나뿐인 것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일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